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지 민^{*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candinavian Furniture Design

Ji-Min Lee^{*1}

ABSTRACT

Scandinavian countries have hold tradition shared historically and culturally in common, brought the weighty traditional thoughts enabled to develop their unique culture. Since 1940s, Scandinavian design could pervade with affectionate forms and practical effectiveness with worldwide popularity. It was brought by creation of new and useful forms for the convenience in life, functionalism but not bounded by fashion of it.

This study tried into the meaning of their history of modern furnishings design based on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furnishings design, its trends, designers and their work focused around Sweden, Finland, and Denmark.

Scandinavian furnishings is a functional furnishings reconciled to natural material and human life exactly correspond to the taste of the generation unrestricted from the tradition of contemporary and compact design preference or classic favored preference. The practicality and exquisite techniques of Scandinavian furnishings lies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for studiously love of the world.

Keywords : Organic Modernism, International Style

*1 여주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Dept. of Interior Design,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Yeojoo , 469-800 . Korea

1. 서론

1.1 연구목적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1940년대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은 우아한 외형과 실용적인 효율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보급될 수 있었다. 그것은 기능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유행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의 편의를 위한 새롭고 유용한 형태를 창조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의 일반적 고찰을 바탕으로 가구 디자인의 발달 배경과 각국의 경향에 따른 주요 디자이너와 작품 등 스칸디나비아의 가구 디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디자인의 역사에 있어서 간과 할 수 없는 전통과 양식을 가진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의 특성과 발전 배경을 본 보기로 하여 국내 가구 산업의 발전에 시급성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산업혁명을 이후로 한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에 대한 특성을 문헌 연구 방법과 인터넷 상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실증적 자료를 시대별로 분류하여 디자인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내용상의 범위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 가정용 가구이면서 인체와 밀접하게 관계하여 직접 인체를 지지하는 인체계 가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2.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발달 과정

1910년부터 기계미학이 확립되는데 밀거름이

되었던 독일 공작연맹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시기를 거쳐 바우하우스 (Bauhau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위적인 운동들이 모더니즘 (Modernism)의 전기를 마련한 시기를 1단계로 하였다.

한편, 전후의 공업 발달을 계기로 가구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된 1945년부터 유기적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이 진정한 모더니즘으로서 완성을 보게된 1960년대까지를 2단계로, 또한 모더니즘(Modernism)이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으로서 자리잡은 1975년까지를 3단계로 하였다. Memphis(Memphis) 가구가 등장하였으며, 모더니즘을 대신할 정신적 지주의 부재로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던 1975년부터 80년대까지를 4단계로 설정하였다.

2.1 1910~1945 기능주의

이 시기의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독일 공작연맹과 바우하우스로부터 새로운 이념뿐만 아니라 조형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나 그들 특유의 천연 재료에 대한 애착으로 수공예의 전통과 결합하여 독창적인 가구 디자인으로 발전시켰다.

1900년대초 파리 박람회로부터 'Scandinavian Grace' 라는 찬사를 세계로부터 받았으며 기술적인 향상은 물론이고, 간결함과 우아함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성이 되었다.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알토(Alvar Aalto)는 20세기의 철저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적인 국제주의 양식과는 반대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하고 요구하고 있는 민족성, 지방성, 휴머니티를 핀란드 대자연의 영혼과 함께 건축과 가구로서 잘 표현하고 있다. 19세기 중엽에 이미 사용되어진 목재의 활용법을 보완하여 독창적인 현대 목재 성형 기법을 창조하였으며, 이러한 기법을 바탕으로 기계를 사용한 효율적인 생산방식과 더불어 합리적인 기능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이기술을 이용하여 파이미오(Fimio) 요양소를 위한 의자를 제작하므로써 또 하나의 기술적 혁신을 이룩하였다.

스웨덴의 부르노 매트슨 (Bruno Mathsson) 이 1934년에 디자인한 "에바(Eva)의자" 는 가벼운

곡선형의 얇은 합판 프레임을 가죽끈을 엮어 외장하였다. 그 밖에도 외장용으로 양가죽이나 염색한 황마, 마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가구 디자인보다는 앉기 쉽고 편한 의자를 디자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스칸디나비아는 1930년대에 이미 그들만의 부드러운 기능주의를 발전시켰는데 1930년에 개최된 스톡홀름 박람회는 스칸디나비아의 전통적인 디자인에 기능주의를 적용한 것으로서 기능, 재료, 생산방법, 디자인 수준의 평준화에 중점을 두고, 고도의 수준으로서 당시 세계의 디자인 관념을 변화시켰다. 명확하게 커트 된 선과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주는 기능주의적 디자인은 우아하면서도 단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직선적이었다.

그들의 디자인은 자연과 자연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억지를 부리지 않는 자연미를 지녔으며, 인간적이고 따뜻하다. 알바알토는 그의 디자인을 핀란드에 대한 애착심에서 유추시켰다고 한다. 조국은 그의 작품에서 풍겨 나오는 내적인 에너지의 근원을 제공하였으며, 수목지역으로 둘러싸인 땅과 호수의 형태를 띤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파이미오 요양소를 위한 의자의 성형된 곡선도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 할 수 있다.

수공예적인 조각성이 두드러지는 덴마크의 핀줄(Finn Jurhl)의 가구는 명료하게 표현된 구조 및 서정적인 그래픽 선, 온화한 생동감이 그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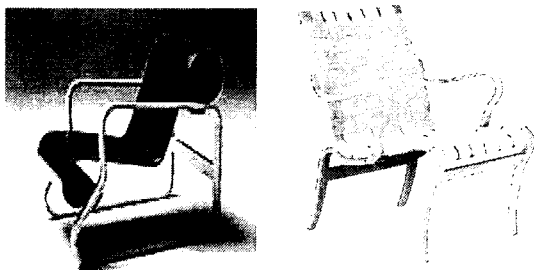


Fig. 1 파이미오의자(Fimio) Fig. 2 에바의자(Eva)

2.2 1945~1960년 유기적모더니즘(Organic Modernism)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전쟁중과 1950년대에 주목할 만한 사회변화가 일어났다. 공업국가로서

산업화가 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으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도시민들은 높은 소득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되었다. 더불어 급증하는 세계무역과 공공 분야의 활발한 건설 산업은 디자이너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준 높은 일상생활용품이 심미성과 유용성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고 전국 판매망을 갖고 있는 가구 및 가정설비 생산회사들은 수송과 보관을 고려한 소비자 조립식의 양산가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였으며, 가구 산업계는 전문별로 세분화 되어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경향들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것은 디자인에 따라 직선적인 형식, 또는 보수적이거나 회고적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들은 가구에 있어서 산업기술과 규준에 의거한 인간주의적 기능주의 생체 표현적 모더니즘, 현대 역사주의, 반 모더니즘 등으로 나타났으나 분명히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완만하여 흐르는 듯한 긴 곡선의 강조였다. 이러한 경향은 1940년대 중반부터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 미학의 디자인 운동이 유기적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으로 발전하는 중에 나타난 형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회화, 조각에서 표현된 생체 표현주의(Biomorphism)의 영향과 합성수지 재료와 성형 기술의 발달로 촉진되었으며 1950년대까지 계속 유행하였다.

바이오모피즘(Biomorphism)은 이러한 유기적 곡선의 전후 가구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둥근 형태를 미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바이오모피즘이라는 레파토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디자이너들은 점차로 곡선화 된 형식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험스 와그너(Hans Wegner)의 라운드 의자(Round chair)를 통해 전후 가구 디자인의 통합성을 볼 수 있다. 그 통합성은 아름답게 조각된 기둥과 팔걸이를 결합한 두 부분들이 하나로 된 리듬 속에서 흐르는 것 같은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전쟁 전에 모더니트적인 의자와 탁자의 평평한 금속판과 판 모양의 강철이 선호되었다면 전후에는 강철

막대기와 철사가 선호되었다. 결국 전후 10년간 유행하였던 많은 프로젝트들의 특징을 이룬 시각적 요소는 새로운 형태들, 새로운 재료들,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풍토를 지니며 물체의 유연함을 강조한 세련미를 증가시키고 단순미를 강조함으로써 만들어 졌다. 이러한 새로운 미학은 좀더 세련되어 졌고 극도로 감각적으로 발전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 국제적인 스타일의 시각적 상징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유기적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은 합성수지 재료와 성형기술의 발달로 촉진되었으며 1950년대까지 계속 유행하였다.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은 신 재료인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1956년에 최초로 다리가 하나달린 피데스탈(pedestal)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복잡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시키는 다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파이버글라스로 강화한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셀을 자기를 입힌 알루미늄 외팔보가 받쳐주고 있다. 또한 폴리폼(polyfoam)으로 외장된 쿠션(Cushion)이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다리를 하나로 해결함으로써 구조상으로 모든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극도의 간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후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의 성공과 1955년의 파리 'Formes Scandiaves' 전시회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스칸디나비아 가구 역시 19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유기적 모더니즘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다. 덴마크의 한스 웨그너 (Hans Wegner) 가 1949년 선보인 'The chair'는 뛰어난 기술과 장인정신의 궁극성을 제시해 준 예술 작품으로서 프레임은 티크(Teak)로 되어 있고 좌석은 등나무를 싹뿌 만들었으며 등받이와 팔걸이가 하나로 연결 되어있다. 1952년 안 야콥센(Arne Jacobser)은 좌판과 등받이가 몰드(Mold) 된 하나의 합판으로 되어있고 금속으로 된 세개의 다리로 지탱되는 '앤티 (Ant)' 의자를 내놓았다. 이것은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며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너도밤나무(Beech), 티크(Teak), 참나무(Oak) 및 단풍나무 (Maple) 로 된 9층의 합판에 열을 가하여 미묘한 곡선으로 성

형한 것이다. 금속 파이프 위에 니켈도금한 3개의 다리는 현대 생산공정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발상으로 생산가도 저렴하고 수송에도 용이하다. 알바 알토가 1954년에 뷔퓨리(Vipuri) 도서관을 위해 제작한 스톨(stool)은 다리의 상단부에 좌판이 올려진다는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깨뜨렸으며 다리의 제작방식이나 다리와 좌판과의 관계에서 유기적 운동감이 느껴진다. 즉 성장하는 나무의 형태를 양식화 시켜 재표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지녔던 유기적 모더니즘 디자인은 아르누보(Art Nouveau)시대 이후로 자연의 유기적 형태와 산업생산에서 요구되는 기능사이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1950년대에 와서는 더욱더 자유로운 형태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다시 장식적인 성향까지 띠게 되었다. 파이버글라스 (Fiber-Glass)로 강화한 폴리에스테르의 출현으로 가구는 한 덩어리로 성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 새로운 비례가 이루어짐으로써 디자이너들이 가구라는 주제를 보다 조형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된 가구의 유기적 모더니즘은 미국의 유선형에 영향을 주었고 1940년대와 1950년대까지 계속되는 유기적 모더니즘은 이른바, 기능적, 기하학적, 추상적 그리고 간결한 형태 특성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특히 가느다란 선과 추상적인 덩어리 형태와 균형, 간결하고 순수하며 비대칭적이면서 아주 자유로운 형태적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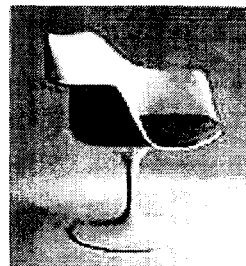


Fig.3 피데스탈(Pedes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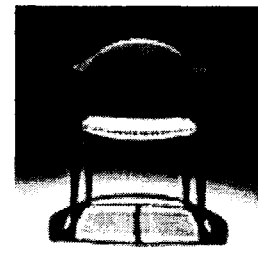


Fig.4 The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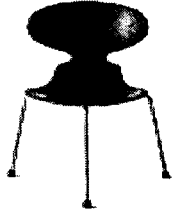


Fig.5 앤트(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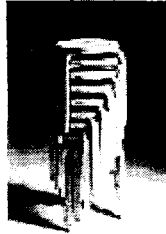


Fig.6 비퓨리(Vip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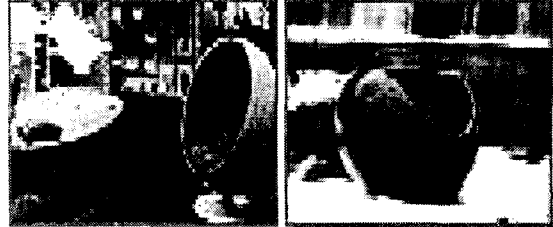


Fig.8 글러브(Globe)

Fig.9 지로의자(Gyro)



Fig.7 에그(Egg)

2.3 1960~1975년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

유기적 모더니즘의 자유롭고 조각적이기 까지의 디자인 언어는 1950년대 후기부터 다시 검소하며 절제된 디자인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지칭하여 국제주의 모더니즘 (International Modernism) 또는 국제주의 양식 (International Style) 이라고 한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성공, 미스 반 데 로헤 (Mies Van de Rohe)의 고전적 모더니즘과 울름 (Ulm) 디자인 대학을 통한 바우하우스 (Bauhaus) 의 부활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핀란드의 에로 아르니오 (Eero Aarnio) 가 1968년에 제작한 '글러브 (globe)' 의자는 플라스틱 프레임 (Frame)과 낮은 금속 지지대의 두 부분으로 구조된 구형의 형태로서 내부에 스폰지로 된 편안한 느낌의 테이크런 (Dacron) 쿠션이 부착되어 있다. '지로(Gyro)' 의자는 구형에 오목하게 제거된 부분을 폴리에스터 (Polyester)를 이용하여 상하 두 부분으로 성형된 뒤에 접합시킨 것이다. 이것은 앉기 위한 목적 외에 흔들리기도 하고 물에 뜨기도 하여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특성이 있다.

2.4 1975~1980년대 탈모더니즘(Memphis)

모더니즘은 기능주의의 한 지류로서 1960년대에 나타난 양식, 이른바 하이테크 (High Tech) 디자인으로 계속 발전해 갔다. 이 시대에는 플라스틱, 금속, 강철파이프로 만들어진 모든 가구들이 폭 넓게 받아들여졌으며, 가구 및 실내 디자인 제품에 대한 우편 주문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맞는 조립과 해체에 편리한, 가구 디자인이 발달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 제품의 발명과 생활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요구로 제한된 공간에서 다목적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는 다기능 가구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매너리즘화 되고 식상화 되어 신선함을 잃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기능성이나 순수한 소재, 우수한 디자인, 사회적 사상 등으로 대표되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개념이 1970년대에 와서는 작품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재인식 운동을 통하여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새로이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간단한 구조와 각이 밋밋한 형태로서 분해와 포장을 용이하게 만든 조립가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조립가구는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배달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며, 가정을 위한 가구의 구입과정을 더욱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갔다.

3. 현대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의 특성

3.1 스웨덴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초 까지 스웨덴에서는 현대 디자인의 모태가 되는 강렬한 예술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스웨덴 디자인사에는 두 가지 주목할만한 시기가 있는데, 기능주의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한 1930년 스톡홀름 전시회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웨덴 고유의 디자인과 수공예 기술에 대한 세계적 이해 기반을 마련하게 된 1955년 헬싱보리에서 열린 생활 용품 전시회 H55가 그것이다. 이 두 전시회는 1845년에 창단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이너 조직인 오늘의 "Svensk Form" (스벤스크 포름) 의 전신인 스웨덴 기술 디자인 협회에 의해 주최되었다.

가구디자인은 지난 수십년 간의 디자인 경향에서 나타나듯이 산업디자인과 전문화 된 수공업적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과 생산 업체들의 인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스웨덴의 가구 디자인은 이러한 산업 디자인과 수공업품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30년의 스톡홀름 전시회는 스웨덴 디자인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 이 이후로는 가구 산업에 있어서도 유행에 앞서 전통을 상징적으로 적용하고, 이론보다는 실용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탄생하였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은 1970년대에 들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가구디자인 분야에도 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정적인 지구자원에 대한 자각 즉 환경과 인간 공학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디자인에 적용된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산업 디자인에 적용이 되어 특별한 목적을 가진 가구 디자인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스타일" 에 근거하는 문제가 아닌 예를 들면 장애인, 노약자와 어린이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고려한 사회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인체공학은 스웨덴의 가구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등 모든 소비재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침이 되어 왔다.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다기능, 고품질 제품에 대한 스웨덴의 명성은 1960년대에 형성되었는데, 1969년에 결성된 디자이너 모임 "Ergonomi Design Gruppen"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되었고 해를 거듭하는 동안 많은 생활 제품에 적용되어 왔다.

인체공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분야는 사무용 가구이다.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유용성이 조화된 스웨덴 사무가구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사무용 가구 전시회인 ORGATEC 의 디자인 추세와도 일치하고 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가능한 한 다리의 수를 줄여 어떤 사무실 구조에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간결하지만 허리의 무리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의자 디자인등 사무 환경을 과학적으로 개발하는 디자인의 스웨덴 사무가구의 핵심이다.

스웨덴의 가구는 책상표면, 셸프 시스템 그리고 의자 등에도 비치, 버치, 메이플 등의 밝은 색상의 목재를 사용하는 추세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목재류의 디자인은 종종 회색 장식의 알루미늄이나 광이나는 철제류와 소화 시켜 소개하고 있다.

스웨덴 가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체들로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대중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왕성하게 공급하고 있다. Lammhults, Asplund, Garsnas, Kallemo, Nola, Ikea등 업체에서 Gunilla Allard, Love Arben, Thomas Sandell, Mats The selius, Camilla Wessman 등의 디자이너들이 합리적이고 감각적인 스웨덴 가구디자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스웨덴 가구에는 오리나무, 버치, 파인 등의 나무가 애용되고 있고 밝은 색상과 질감을 유지하며 살아있는 나무의 숨결을 강조하였다.

IKEA 는 이러한 스웨덴 가구 디자인을 가장 규모 있게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IKEA 의 가구는 스웨덴 고유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조립식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스웨덴 가구 산업에서는 단지 유행만을 추구하

는 디자인이란 수용되기 어려우며 가구 고유한 기능성을 겸비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가정용 가구는 물론이며 기능성을 강조하는 인체계 가구에서 더욱 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 기능성과 그 안전 때문에 세계의 도처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3.2 핀란드

핀란드의 민족성은 북구 특유의 자연조건과 그로 인한 풍토성으로부터 형성되어진다. 북구의 거친 물리적 환경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불가피하게 했던 반면, 울창한 산림과 호수가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자연은 핀란드인에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동시에 안겨 주었다. 핀란드는 기능과 자연의 조화라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단순성, 간결성, 기능성, 담백성과 함께 대범하고 강한 맛을 풍기는 디자인으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또다른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다. 디자인 이론가 카호넨(Kahonnen)은 '핀란드 디자인의 특징은 자연의 원초성에 바탕을 두고, 단순하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보는데서 기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어진 자연환경을 아끼고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며 소박하게 사는 이들의 민족성과 생활 태도는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풍부한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한 목재와 거기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운 형태는 핀란드의 디자인을 대변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후퇴와 유럽 통합(EC)은 핀란드의 디자인에 조형적인 측면을 포함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헬싱키 응용 미술 박물관(Applied Art Museum Helsinki)의 선임큐레이터인 칼린(K. Kalin)은 최근 나타나는 핀란드 디자인의 특징으로 '공방 공예에서 나오는 독특한 제품과 중소기업의 하이테크 디자인 경향'을 들면서 "젊은 디자이너들은 다시 핀란드의 전통과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의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디자인 이론가 카보넨은 핀란드 디자인의 최근 경향에서 '나무나 돌과 같은 전통적 재료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현대의 금속과 플라스틱, 화이버 글래스 등의 재료와 합쳐져 전통과 현대가 만나

는 부드러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핀란드는 전통 공예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험해 온 나라다. 최근에는 그들이 50년대에 보였던 왕성한 실험정신이 다소 떨어져 보이지만 그들의 디자인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본질적인 기능 추구를 바탕으로 최소성, 간결성, 소박성, 담백성과 함께 강한 이미지를 내포한 이중성을 보이며 세계는 물론 북구 속에서도 구별된다.

3.3 덴마크

덴마크의 디자인 문화는 북구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과의 조화'와 수공예를 바탕으로 한 일상 생활을 위한 디자인'에서 발견된다. 자연, 역사, 전통을 존중하는 덴마크의 디자인 문화는 시대에 따른 인간 요구와 현대적인 기술을 가미시켜 독자적인 특질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과 시대성, 인간성을 교묘히 조화시키는 덴마크의 디자인을 북구의 어느 나라보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디자인 시장과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것이다. 한편 이들 덴마크 디자이너들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함에 있어서 제품과 디자인의 '경제적 논리'와 '본질'을 추구하여 그들의 디자인을 일상생활과 밀착시킨다. 전후 덴마크의 독자적 조형 방향을 선도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야콥센(A. Jacobsen)은 특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생산 기법을 개선하여 새롭고도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디자인으로 재 창조해낸 대표적인 디자이너중 한 사람이다. 야콥센의 디자인이 탁월한 것은 당시 산업시대의 생산 방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생산 공정과 재료의 최소성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일체 굳어더기가 없는 명료한 형태로 도달케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의 본질에 입각한 우아한 형태와 생산 공정의 단순화로 인한 저렴한 가격대의 디자인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지향하는 '일상생활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Everyday)'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대적 디자인을 창조하는 야콥센

의 자세는 베그너 (H. Wegner)의 '공작 (Peacock, 1945)에서 출발하여 디첼 (N. Ditzel)의 합판의자 '나비 (Butterfly 1989)'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덴마크의 디자인에 흔히 나타난다.

덴마크는 북구 디자인의 전통인 자연, 공예, 생활과 밀착된 디자인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제품과 디자인을 현대의 기술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조형이 시대가 변하여도 생명력을 갖는 것은 사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 속에서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대에 조화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을 강조하는데서 나온다. 이러한 디자인 문화로 덴마크 디자인은 항상 세계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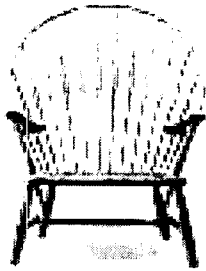


Fig. 10 공작



Fig. 11 나비

4. 결 론

북구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후는 특유의 문화를 이루었다. 낮이 짧고 밤이 길며 때로는 백야가 지속되어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가정생활을 중요시하게 되어 그들에게 가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스칸디나비아의 가구들은 휴식적이고 포근하며 안락한 공간을 연출하도록 형태에서 곡선적 요소가 느껴지는 조형적 특성을 띠고 있다. 또한 여름보다 겨울인 긴 추운 기후 때문에 금속보다는 목재를 가구의 주 재료로 사용하였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있어서 관심의 초점은

자연과 자연 현상이며, 풍부한 산림자원과 기능주의가 결합하여 조형에 있어서 나무의 특성을 살린 가구가 탄생하였다.

스칸디나비아의 가구 디자인이 생성 되어온 근원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지리적인 특성으로서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 나라의 자연환경과 민족적인 특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구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었다. 북구의 민족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도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은 외형은 이탈리아의 디자인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연과의 조화라든지 문화적인 감성에 있어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것들이었다.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의 특징으로는 첫째, 금속, 가죽 그리고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의 처리에 있어서 많은 경쟁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가구에 한해서 선호되는 가구는 아직까지 나무가 주재료로서 덴마크의 너도밤나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소나무, 핀란드의 자작나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통적 측면에서의 견고함과 현대적 가구들이 보여주는 얇은 판으로 겹쳐져 만들어진 실험적 작품등 나무가 여전히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생산 방식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지배적이다. 디자인을 함에 있어 자연, 전통, 역사들의 선형적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가구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는 인간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인본주의적 디자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가구는 기능에 중점을 둔 즉, 기능적인 미적 감각 또는 생산과 사용의 보편적인 수요에 만족하는 가구들이었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기술자와 같은 전문분야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되면 공통적으로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더불어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의 발전적 요인이 되었다.

스칸디나비아는 산업화와 함께 문화적 발전 시기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진 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민족적 전통과 함께 일찍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디자인에 있어서 세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제 시대는 정보화 시대로의 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미래의 사회적 특징은 흔히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이성과 감성, 개인과 사회 등이 제 가치의 조화를 통한 통합적 가치가 중요시 될 것이다. 또한 정보시대의 가치는 문화나 디자인의 차별성과 세계성의 조화가 세계 경제 가치를 이끄는 중요성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21세기에 세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인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 자성적 디자인 문화의 창조가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1. 오영근, 세계 가구의 역사, 기문당, 1999
2.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6
3. 이연숙, 현대 가구의 역사, 경춘사, 1988
4. 강현주, 스웨덴 디자인의 발전과 현재, 디자인학 연구, 1995, vol.11
5. 이은주, 알바알토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대대학원, 1994
6. 최미연, 20세기 현대 미술에 나타난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1999
7. 월간 디자인, 1997, 9
[www. scandinaviandesign.com](http://www.scandinaviandesign.com)
[www. furninet.co.kr](http://www.furninet.co.kr)